



양현종 '쾌투' KIA 2승 신고

4탈삼진...삼성 1-0 꺾어



양현종이 공격적인 피칭으로 삼성의 타선을 잠재우는 동안 KIA에게 먼저 기회가 왔다. 3회 연속 볼넷과 김원섭의 우전 안타로 1사 만루. 하지만 신인 안치홍의 병살타가 나

오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4회말 다시 기회가 왔다. 장성호가 볼넷으로 얻어 나간 뒤 최희섭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KIA는 이종범과 이현근의 희생타를 묶어 선취점을 뽑아냈지만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7회 1사 1-2루의 찬스를 연속 삼진으로 무산시키면서 1점 차의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KIA는 8회의 득점기에도 무산시켰다. 장성호의 중전안타로 시작한 8회말, 1사 1루에서 이종범이 삼성 투수 안지만과 8구까지 가는 신명전을 벌인 끝에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1사 1-3루를 만들었다. 이현근의 3루수 앞 땅볼이 나오면서 홈으로 쇄도하던 대주자 최용규가 아웃 된 뒤, 나지완 마저 파울 플레이로 돌아섰다. 타선이 터지지 않자 마운드가 승리 수호를 위한 철벽 방어를 나섰다. 선발 양현종이 8이닝을 무결점 투구로 막은 뒤 9회 마무리 한기주가 등판했다. 한기주는 1사에서 김상수에 2루타를 맞기는 했지만 신명철을 삼진으로 돌려 세운 뒤 강봉규도 삼진으로 잡아내며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KIA는 이날 승리로 2연패에서 탈출했으나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6연전에서 2승 1무 3패를 기록하는 데 그쳐, 롯데 자이언츠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이 공격적인 피칭으로 삼성의 타선을 잠재우는 동안 KIA에게 먼저 기회가 왔다. 3회 연속 볼넷과 김원섭의 우전 안타로 1사 만루. 하지만 신인 안치홍의 병살타가 나

오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4회말 다시 기회가 왔다. 장성호가 볼넷으로 얻어 나간 뒤 최희섭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KIA는 이종범과 이현근의 희생타를 묶어 선취점을 뽑아냈지만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7회 1사 1-2루의 찬스를 연속 삼진으로 무산시키면서 1점 차의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KIA는 8회의 득점기에도 무산시켰다. 장성호의 중전안타로 시작한 8회말, 1사 1루에서 이종범이 삼성 투수 안지만과 8구까지 가는 신명전을 벌인 끝에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1사 1-3루를 만들었다. 이현근의 3루수 앞 땅볼이 나오면서 홈으로 쇄도하던 대주자 최용규가 아웃 된 뒤, 나지완 마저 파울 플레이로 돌아섰다. 타선이 터지지 않자 마운드가 승리 수호를 위한 철벽 방어를 나섰다. 선발 양현종이 8이닝을 무결점 투구로 막은 뒤 9회 마무리 한기주가 등판했다. 한기주는 1사에서 김상수에 2루타를 맞기는 했지만 신명철을 삼진으로 돌려 세운 뒤 강봉규도 삼진으로 잡아내며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KIA는 이날 승리로 2연패에서 탈출했으나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6연전에서 2승 1무 3패를 기록하는 데 그쳐, 롯데 자이언츠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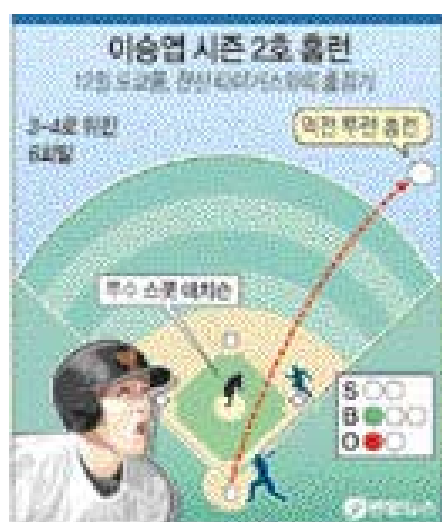
양현종이 공격적인 피칭으로 삼성의 타선을 잠재우는 동안 KIA에게 먼저 기회가 왔다. 3회 연속 볼넷과 김원섭의 우전 안타로 1사 만루. 하지만 신인 안치홍의 병살타가 나

오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4회말 다시 기회가 왔다. 장성호가 볼넷으로 얻어 나간 뒤 최희섭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KIA는 이종범과 이현근의 희생타를 묶어 선취점을 뽑아냈지만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7회 1사 1-2루의 찬스를 연속 삼진으로 무산시키면서 1점 차의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KIA는 8회의 득점기에도 무산시켰다. 장성호의 중전안타로 시작한 8회말, 1사 1루에서 이종범이 삼성 투수 안지만과 8구까지 가는 신명전을 벌인 끝에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1사 1-3루를 만들었다. 이현근의 3루수 앞 땅볼이 나오면서 홈으로 쇄도하던 대주자 최용규가 아웃 된 뒤, 나지완 마저 파울 플레이로 돌아섰다. 타선이 터지지 않자 마운드가 승리 수호를 위한 철벽 방어를 나섰다. 선발 양현종이 8이닝을 무결점 투구로 막은 뒤 9회 마무리 한기주가 등판했다. 한기주는 1사에서 김상수에 2루타를 맞기는 했지만 신명철을 삼진으로 돌려 세운 뒤 강봉규도 삼진으로 잡아내며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KIA는 이날 승리로 2연패에서 탈출했으나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6연전에서 2승 1무 3패를 기록하는 데 그쳐, 롯데 자이언츠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시즌 2호 투런포 작렬

3안타 3타점 안타... 팀은 비겨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침묵을 깨고 시즌 2호 홈런포를 터뜨렸다. 이승엽은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1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 3-4로 뒤진 6회말 1사 1루에서 한신 우완투수 스콧 에치슨의 몸쪽 높은 슬라이더(시속 130km)를 그대로 잡아당겨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비거리 120m짜리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지난 4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홈경기에서 좌중간 솔로 아치로 마수결이 포를 때린 뒤 8일 만에 나온 홈런으로 이승엽은 한국과 일본 통산 450홈런에 1개를 남겼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324개, 일본에서 이날까지 6년 동안 125개를 때렸다. 6회말 이승엽의 뒤를 이어 아베 신노스케가 가운데 쪽으로 연속타자 홈런을 때렸고 요미우리는 6-5로 승리를 눈 앞에 뒀으나 마무리 투수 마크 크론이 9회초 동점을 허용하면서 이승엽은 벌써 결승타를 세 번이나 놓쳤다. 4~5일 히로시마와 경기에서 이틀 연속 홈런과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으나 구원 투수의 난조로 결승 타를 날렸던 이승엽은 이날 홈런으로 타격 감각을 되찾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요미우리는 연장 12회 접전 끝에 6-6으로



비겼다. 이승엽은 2-0으로 앞선 1회 1사 1-3루에서 후쿠하라의 몸쪽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깨끗한 우전 안타로 첫 타점을 올렸다. 3-4로 뒤진 4회 무사 2루에서는 삼진으로 돌아서 아쉬움을 줬으나 6회 드디어 폭발했다. 이승엽은 이날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시즌 타율은 0.150에서 0.240(25타수6안타)으로 올랐다. 7일 요코하마전에서 삼진 2개를 당한 뒤 교체됐고 이후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는 등 시즌 초반부터 위기에 몰렸던 이승엽은 이날 시원한 대포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연합뉴스

'금빛남매' 이용대-이효정 우승 스페셜

한국, 靑선수권 5년만에 정상

한국 서클복의 간판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선전기)조가 2009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이효정 조는 12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 일 혼합복식 결승에서 대표팀 후배 유연성(수원시청)-김민정(전북은행) 조를 상대로 35분만에 2-0(21-12 21-15)으로 승리를 거뒀다. 한국이 아시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김동문-라경민 조 이후 5년만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은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에서는 은메달에 그쳤다. 차세대 기대주 유연성-고성현(동의대) 조는 남자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인도네시아의 마르키스 키도-헨드라 세티아완 조를 상대로 선전을 펼쳤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0-2(18-21 24-26)로 패했다. 여자복식의 간판 이경원-이효정 조는 역시 결승에서 중국의 신예 마진-왕샤오리 조에 0-2(11-21 18-21)로 졌다. 중국 선수끼리 맞붙은 남녀 단식 결승에서 바오춘라이와 주린이 각각 우승했다. /연합뉴스



1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GS칼텍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 선수들이 우승컵을 앞에 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흥국생명 "우리가 챔피언!"

GS칼텍스 꺾고 2년만에 'V기쁨' 남자부에선 삼성화재 3번째 정상 남녀 MVP 최태웅·김연경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이 2년 만에 다시 챔피언에 등극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NH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4차전에서 57점을 합작한 김연경과 카리나 '쌍포'를 앞세워 정규리그 1위팀 GS칼텍스를 세트스코어 3-1(25-20 22-25 25-22 25-18)로 제압했다. 챔피언 1차전에서 패한 뒤 내리 세 판을 따낸 흥국생명은 이로써 2005-2006, 2006-2007 시즌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 위업을 이뤘다. 정규리그 3위로 턱걸이해 KT&G를 제치고 챔피언전에 오른 흥국생명은 시즌 도중 두 차례 사령탑 교체와 주축 선수들의 잇단 부상, 수술 등 온갖 악재와 내홍을 딛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여자배구 코트의 '명가'로 우뚝 섰다. 흥국생명 주포 김연경은 최우수선수(MVP) 기자단 투표에서 28표 중 24표를 획득, 2005-2006 시즌부터 네 시즌 연속 MVP에 올랐다. 승부의 분수령이 된 3세트, 김연경의 두뇌플레이와 카리나의 파워가 승부의 추를 흥국생명 쪽으로 급격히 기울였다. 김연경은 GS칼텍스 블로킹 벽을 비웃기

를 들어 올린 여자배구 코트의 '명가'로 우뚝 섰다. 흥국생명 주포 김연경은 최우수선수(MVP) 기자단 투표에서 28표 중 24표를 획득, 2005-2006 시즌부터 네 시즌 연속 MVP에 올랐다. 승부의 분수령이 된 3세트, 김연경의 두뇌플레이와 카리나의 파워가 승부의 추를 흥국생명 쪽으로 급격히 기울였다. 김연경은 GS칼텍스 블로킹 벽을 비웃기

라도 하듯 힘을 빼고 타점만 유지하면서 빈 곳을 골라 때리는 스파이크로 상대 선수들의 혼을 빼놓았고, 흥국생명은 14-13에서 카리나와 한송이의 연속 블로킹으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3세트를 25-22로 따낸 흥국생명은 4세트에서도 기세가 꺾인 GS칼텍스를 3점 차이로 상 리드를 잡고 줄곧 몰아붙인 끝에 챔피언결정전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남자부 경기에선 '30대 노장군단' 삼

성화재가 남자 프로배구 사상 처음으로 3번째 정상에 올랐다. 삼성화재는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 점진 끝에 3-2(18-25 25-20 19-25 25-20 15-13)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지난 시즌에 이어 연속 왕좌를 차지했다. 지능적 플레이로 삼성화재를 우승으로 견인한 세터 최태웅은 기자단 투표 38표 중 20표를 얻어 14표에 그친 동료 안젤코를 제치고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승리의 열쇠' 안젤코의 막판 맹활약과 노장들의 투지가 삼성화재의 승리를 이끌었다. 안젤코는 3세트까지 부진했지만 4세트부터 득점 기계 본능을 드러냈다. 안젤코는 4세트 7점을 올리면서 서서히 제 컨디션을 찾았고 5세트 5점을 쓸어들면서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연합뉴스

4시즌 연속 MVP 선정된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

"日·이탈리아 프로 선수들과 겨뤄보고 싶다"

"다른 시즌보다 더 힘들어서 그런지 챔피언이 되고 또 MVP로 뽑혀 훨씬 기분이 좋다. 이제는 이탈리아에서 외국선수들과 겨뤄보고 싶다" 흥국생명 김연경(21)이 1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33점을 폭발시키며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해 챔피언결정전에서 GS칼텍스에 당한 패배를 되갚으며 2년 만에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김연경은 이날 GS칼텍스 데라크루즈(36점)에 이어 득점에서는 2위에 올랐으나 공격성공률은 65.2%로 데라크루즈(50.9%)에 비해 훨씬 높았다. 김연경은 배구 관계자 등이 참가한 MVP 투표에서 28표 중 24표의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 MVP에 올랐다. 김연경은 경기 뒤 "이번 시즌 감독 교체 등으로 모두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192cm의 큰 키에 유연한 몸과 순발력, 수비 능력, 독특한 배짱까지 두루 갖춘 그녀는 고교를 졸업하고 입단 첫해인 2005~2006 시즌 흥국생명을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에 올려놓으며 무서운 '슈퍼 루키'로 통했다. '한국 배구사에서 가장 뛰어난 거포 재목'이라는 격찬을 받았던 김연경은 데뷔 첫해인 2005~2006시즌 신인왕을 비롯해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MVP를 싹쓸이했으며 이어 2006~2007시즌에도 정규리그 MVP와 챔피언결정전 MVP에 동시에 올랐다. 또 팀이 챔피언 준우승에 그친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MVP는 놓치지 않았다. 프로배구 4년차로 이젠 흥국생명의 중심

으로 우뚝 선 김연경은 한 층 업그레이드된 공격수로 변신했다. 무조건 힘을 앞세워 강스파이크를 때리기 보다는 블로킹이 많이 붙으면 블로커를 손위로 공을 살짝 밀어 넣기도 하고 스파이크 속도를 적절하게 섞고 틀어 때리는 등 영리한 공격으로 GS칼텍스 수비들을 흔들었다. 김연경은 GS칼텍스와 챔피언결정전에서는 1차전 11점에 그쳤던 김연경은 2차전 23점, 이날 3차전에서는 26점을 넣으면서 상승세를 이어 갔으며 결국 4차전에서도 33점을 넣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김연경은 올 시즌을 끝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다. 김연경은 "이탈리아나 일본 프로배구에서 외국 선수들과 겨뤄보고 싶다"며 "흥국생명 선수들과 마지막 경기까지 몰라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